

## 뉴욕 증시와 의쟁투의 추억

8월 초 방한한 중국 통처(通策) 의료그룹의 류지안밍(呂建明·42)회장을 만났다. 류 회장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통처 그룹'을 만들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사업에 뛰어 들었다. '통처의료그룹'은 중국 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증시에 상장된 곳이다. 통처의료그룹에는 항저우(杭州)치과병원 등 2개 치과병원이 소속돼 있다. 항저우치과병원은 치과용 치료 의자가 160개에 이르는 대형 병원이다. 연간 환자수는 30만 명에 이른다.

단순 규모 면에선 깜짝 놀랄 수준이지만 뭐든지 큰 중국의 '사이즈'를 감안하면, 통처의료그룹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의료 서비스와 질 면에서는 아직 국내 병원보다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었다. 류 회장이 방한한 이유도 한국의 한 네트워크 병원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정작 기자가 놀란 것은 통처의료그룹의 현재 모습이 아니었다. 통처그룹이 그리고 있는 중국 병원의 미래였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류 회장은 몇가지 단서를 달더니 "뉴욕증시에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있던 한국의 병원장이 "눈높이가 달라"하고 허허 웃었다. 내친김에 아시아에 모델이 있느냐고 물었다. 외국 환자들이 몰린다는 태국 범룽랏 병원이나 싱가포르 병원의 이름이 나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세계 최대의 병원 영리법인인 미국 HCA를 거명했다. 머지않아 HCA만큼 병원을 키우겠다는 얘기였다.



글·김영훈  
중앙일보 사회부문 기자

류 회장을 보내고 나서 '과연 한국의 병원장 중 뉴욕증시 상장을 생각하는 병원장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해외 병원과 당당히 경쟁해보겠다고 나서는 병원은 별로 보지 못해서다.

왜 우리 병원들은 이런 큰 꿈을 꾸지 못할까. 필자가 만나 본 의사들은 정부 탓부터 했다. "규제가 너무 많다"는 답도 있었고,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선 희망이 없다"는 자조도 있었다. "뉴욕 증시 상장이 병원의 목표가 될 수 있느냐"는 반문이었다.

과연 그런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야 의사들만큼이나 할말이 많지만 일단 접어두자. 뉴욕증시 상장이 모든 병원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리 추구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우수한 비영리법인 병원이나 유명 전문 병원을 경쟁 상대나 모델로는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많다는데 그 규제 중 일부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병원이 중국 병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투쟁은 의사들에게만 참으로 남다른 경험이었다. 개원의부터 대학병원 의사까지 한목소리를 냈고, 나중에 약속이 어찌 됐을망정 정부로부터 양보도 얻어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우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로 뭉칠 수 없다.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뉘듯 이미 의료기관도 구분이 분명해졌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서로 규모만 다른것이 아니라 이해가 다르다. 심지어 이해가 충돌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로 충돌하는 일은 더 늘어날 것이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또 반대나 저지 위주의 투쟁은 이제 낡은 것이 됐다.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지말라'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의 유명세에 가려져 있는 실력있는 중소 전문병원이라면 '병원평가 반대'에 묻혀있을게 아니라 평가를 대폭 확대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요양병원이 급속히 늘어나 '의료비 덩핑' 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병원들이 먼저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서면,



그때야 반대 피켓을 들고 나설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외국 병원을 경쟁상대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됐다.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지만 정책에 항의한다고 기업 문을 닫진 않는다. 문 닫고 하루 쉬는 사이 외국의 경쟁사들이 주문을 싹쓸이해가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거리 위에서 농성을 했지만 쌀 시장은 개방됐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부정해도 국내에서 우리나라 병원끼리 나눠먹던 시대는 머지않아 마감된다. 그래서 의쟁투식 대응은 이제 유효기간이 거의 다 했다. 병협도, 의협도, 병원도, 의사도 변해야 산다. **KHA**